80

폐결핵의 폐절제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신동근 김애중 옥을수 구자흥 조중구 김공수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79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폐결핵으로 폐절제술을 실시한 44명중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분포는 20,30대가 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성별분포는 남자가 28명, 여자가 8명으로 남녀비는 3.5:1이었다.
2. 증상은 chest pain과 hemoptysis or blood tinged sputum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cough, purulent sputum, dyspnea등이 있었다.
3. 병력기간은 1년 미만이 33%, 1-5년이 47%, 5-10년이 12%, 10년이상이 8%였다.
4. 술전 객담 도말 검사상 균음전에는 78%였고 화학요법에도 불구하고 균양성에는 22%이었다.
5. 술전 폐기능 검사상 VC는 평균 77.8%, FEV1은 84.9%, MVV는 73.1%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6. 수술 적응을 보면 공동을 동반한 폐구역 및 폐엽의 심한 파괴가 55.5%로 가장 많았으며, 종격동 종양이나 폐종양을 의심할만한 원형종괴를 보인 경우가 14%, 황무폐가 11%를 차지하였고, 결핵병소는 우상엽이 27.7%로 가장많았다.
7. 술식은 폐엽절제가 50%였고, 폐구역절제가 27.7%, 전폐절제가 16.6%이었다.
8. 술후 주요 합병증으로는 empyema with BPF가 2예, remnant dead space가 4예, 결핵균의 early and late spread가 각각 2예이었다
9. 1예에서 좌상엽절제후 합병한 ulcerative colitis due to drug hypersensitiviy로 colostomy시행후 2일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술후 사망율은 2.7%이었다.